



불량한 예후의 총의치 환자에서 tissue conditioner를 이용한 연마면 인상

김진섭*, 정재현 |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무치악 환자에 있어서 총의치를 제작해 주는 주된 목적은 구강악 기능 회복으로 저작기능, 발음, 심미성을 회복해 주는데 있다. 그러나 종종 임상에서는 상, 하악 치조골의 심각한 소실로 인하여 적절한 유지와 안정을 얻도록 총의치를 제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 심각한 치주염이나 불량한 의치의 장착 등으로 인해 과도한 치조골 소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치의 유지력 및 지지의 저하, 연조직에 sore spot이 생기고 불완전한 저작운동 등이 야기되게 된다. 특히 하악에서는 상악보다 더 빠르고 많은 치조골 소실이 발생하여 하악의치의 경우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골소실로 야기된 문제의 해결법으로 ridge augmentation, vestibular plasty 등이 시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implant 식립 등의 방법이 널리 소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술식은 환자의 전신적 건강 상태나 외과적 치료에서 오는 부작용, 과도한 경제적 부담, 치료 종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등 제한된 적응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술식을 행하지 못하는 환자도 있다.

이러한 환자에서 치료 방법으로는 총의치의 인상면, 연마면, 교합면을 가능한 정확하고 원칙적으로 총의치의 제작을 해야 한다. 이 중에서 특히 뺨, 입술, 혀 사이에 힘의 균형을 이루는 potential space인 neutral zone개념을 도입하여 연마면의 정확한 형성을 시도함으로써 더 좋은 의치의 유지와 안정을 얻음으로서 의치 탈락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감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불량한 예후의 총의치 환자에서 tissue conditioner를 이용한 연마면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